

훌쩍 오른 1월분 난방비 고지서에 서민들 '한숨'

난방요금 인상에 한파까지 겹쳐 "실내온도 낮추는 등 애썼는데..." 자영업자·복지센터 등지 큰 타격 "소외계층 에너지 지원 강화해야"

#광주 동구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A씨는 1월달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지난달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30여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아이 때문에 난방을 아예 끌 순 없으나 어떻게든 난방비를 줄여보고자 아이에게 늘 두겹계 옷을 입히고 20도에서 22도만 유지하다 보니 따뜻하지 않은 바닥과 싸늘한 공기 속에 지냈다. A씨는 "심지어 배관 청소 창틈에 방풍지, 스펀지를 채우고 단열재를 벽면에 들렀는데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난방 취약계층이 남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추울 때 돈 계산하면서 난방을 틀지 못하다 보니 서럽기도 하다"고 호소했다.

#화순에서 광주로 출근하는 30대 직장인 B씨도 이달 초 도시가스 요금으로만 30여만원이 나온 명세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생각했던 이상으로 난방비가 많이 나오면서 생활비에 차질이 생겼고 이제 난방을 줄이든 식비를 줄이든지를

전기에너지 48,000원 우리집 48,290원 동일면적 83,906원 전력량요 등 19,404 연료비조정 770 승강기전기 3,530 기후환경 19,404 공동전기로 TV수신료 3,530		열에너지 404,000원 우리집 404,360원 동일면적 171,724원 난방 372,320 난방기본료 372,320 급탕	
관리비 납입회서 (은행용) 2025년 1월 704 동 703 호 112.457㎡ 당월 부과액 654,440 할인총계 미납액 미납연체료 납기내금액 654,440 ※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하시면 연체료가 일괄계산되어 다음달 납기내금액에 포함됩니다. 납부기한 2025년 2월28일		관리비 납입영수증 (입주자용) 2025년 1월 112.457㎡ 일반관리비 64,300 전기 154 kwh 21,560 장기수선충당 22,330 TV수신료 2,500 경비비 35,110 공동전기로 20,700 청소비 23,480 승강기전기 3,530 소독비 1,070 위탁관리비 660 수도 13㎡ 7,210 화재보험료 8,440 하수도로 8,220 수선유지비 21,900 물이용부담금 2,150 승강기유지 2,760 난방 138㎡ 372,320 대표회의비 3,690 난방기본료 6,040 급탕 4㎡ 26,000 선거관리운영 470	

65만원이 청구된 A씨의 1월달 관리비 고지서.

독자 제공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3월을 앞두고 계속되는 한파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번 겨울이 유독 춥게 느껴진다는 호소가 나온다.

난방비 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난해 주택 난방 사용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한파가 계속된 것이 꼽힌다.

2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의 평균기온은 4.3도로 2023년 같은 달(5.3도)에 비해 1도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최고기온(9도)과 평균 최저기온(0.1도)도 각각 0.8도와 1.1도 하락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7월 1일자로 주택용

난방 사용요금이 메가칼로리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9.8%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 가중됐다.

인상액이 4인 가구 기준 한 달 평균 6000원 가량 예상됐지만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난방비가 거의 2배가 올랐다는게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안 그래도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지난해

12·3 계엄 이후 계속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정비 지출 증가는 더 크게 다가온다.

광주 남구에서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63)씨는 "코로나를 버텼더니 경기 침체가 오고, 꾸역꾸역 버텨내고 있었는데 12·3계엄으로 연말 연초 회식마저 없어졌다. 그런 와중에 난방비까지 인상되니 먹고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복지센터의 경우 일반 가정에 비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광주 동구의 한 노인복지센터는 지난해 1월 70여만원 청구됐던 난방비가 1년 만에 140여만원으로 뛰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등록 회원수가 크게 많아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함에도 센터까지 힘든 발걸음을 했다고 생각하면 난방비를 아낄 수도 없다는 게 노인복지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센터 운영비가 300만원이 채 안되는데 절반을 가스요금으로 냈다"며 "겨울철 후원금이나 지원금이 줄어들 경우 센터 운영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재해구호기금관리 조례에 근거해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기자 hyunki.min@jnilbo.com

"옛 전남도청 '보도검열관실' 복원은 민주주의·언론 교육 역할"

류한호 교수, 복원 토론회서 밝혀 나익전 관장 "국민 역사교실로"

옛 전남도청에 있었던 '광주지역 보도검열관실' 복원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시민교육과 지역간·세대간 소통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한호 광주대 명예교수는 26일 광주 5·18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옛 전남도청 내 보도검열관실 복원을 위한 토

론회'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검열과 민주주의의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반민주적 행위가 벌어지던 공간을 복원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류 교수는 이어 "전남도청 복원작업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단계에서 보도검열관실을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새로운 역사 인식에 따라 관련 주제인 복원을 주장하는 단체들과

사업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화에 적극 나선다면 복원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나익전 5·18기록관장은 80년 당시 4년차 기자로서 전남도청 '보도검열관실'을 출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의 자유' 중요성을 설명하며 검열관실을 '국민 역사교실'로 복원하기를 기대했다.

나 관장은 "군부로부터 언론을 검열받던 시절이었다"며 "도청 검열관실을 복원

하면, 언론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유린당할 수 있는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언론의 책임과 용기가 무엇인지, 언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자유언론의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허연식 전 5·18진상조사위원회 조사2과장과 홍성철 옛 전남도청복원 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해 검열관실 복원의 중요성과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보도검열관실'은 지난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전두환의 계엄사령부가 전남도청 별관 2층에 설치한 언론 탄압 조직이다. 이 조직은

1981년 1월 24일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광주지역의 신문·잡지·방송 등 모든 언론을 검열했다.

광주전남언론인회는 검열관실은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므로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과 함께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 답보 상태다. 사업을 집행할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도검열관실이 있었던 공간이 사라졌다며 난색을 표하면서다.

광주전남언론인회는 앞으로 기자회견 등 전국의 언론단체들과 협력해 토론회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유철 기자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능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2017 건강기능식품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그로인에 건강기능식품: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유량: 300mg입니다.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